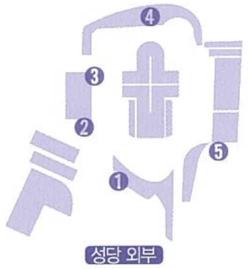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Myeongdong Cathedral



루르드 성모 동굴 대리석, 1960

Grotto of Our Lady of Lourdes

노기남 대주교가 우리나라의 평화에 지향을 두고 제작하였고, 1960년 8월 27일 봉헌되었다.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심

장동호, 대리석, 1994

Jesus is condemned to death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려는 모습의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이춘만, 청동, 2002

St. Andrew Kim Taegon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전파하다 체포된 김대건 신부의 굳건한 모습이 형상화된 조각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홍찬석, 1948

Statue of Our Lad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명동성당 축성 50주년 기념으로 봉헌되었다. 성모상 하단에는 '원죄 없으신 잉태'를 뜻하는 성모무염시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예수상

최종태, 화강석, 1987

Statue of Jesus

세상 풍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줄 듯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문학진, 캔버스에 유채, 1983

St. Andrew Kim Taegon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며,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님의 초상화로 제단 가까이에 걸어 둠으로써 오늘날에도 사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려준다.

14사도화

장발, 캔버스에 유채, 1926

Portrait of the 14 Disciples

이스카리옷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의 제자와 바오로, 바르나바, 마티아를 포함하여 14명의 사도를 표현하였다. 각 사도의 전통적인 상징물과 도상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79위 복자화

(가)주스티니안, 캔버스에 유채, 1926

Painting of the 79 blessed martyrs of Korea

1925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한국순교자 79위 시복식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승훈 베드로

황창배, 수묵담채, 1984

Yi Seung-hun Peter

한국 최초의 세례자로 세례를 받은 후 한국 가톨릭교회를 주도하였다.

지하 성당 성해 안치실

The Crypt

성당 제대 하부에 위치하며 다섯 분의 성인과 네 분의 순교자의 유해를 모시고 있다.

이벽 요한 세례자 김태, 캔버스에 유채, 1984

Lee Byuck John the Baptist

신앙의 선조인 이벽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범우 토마스

조영동, 캔버스에 유채,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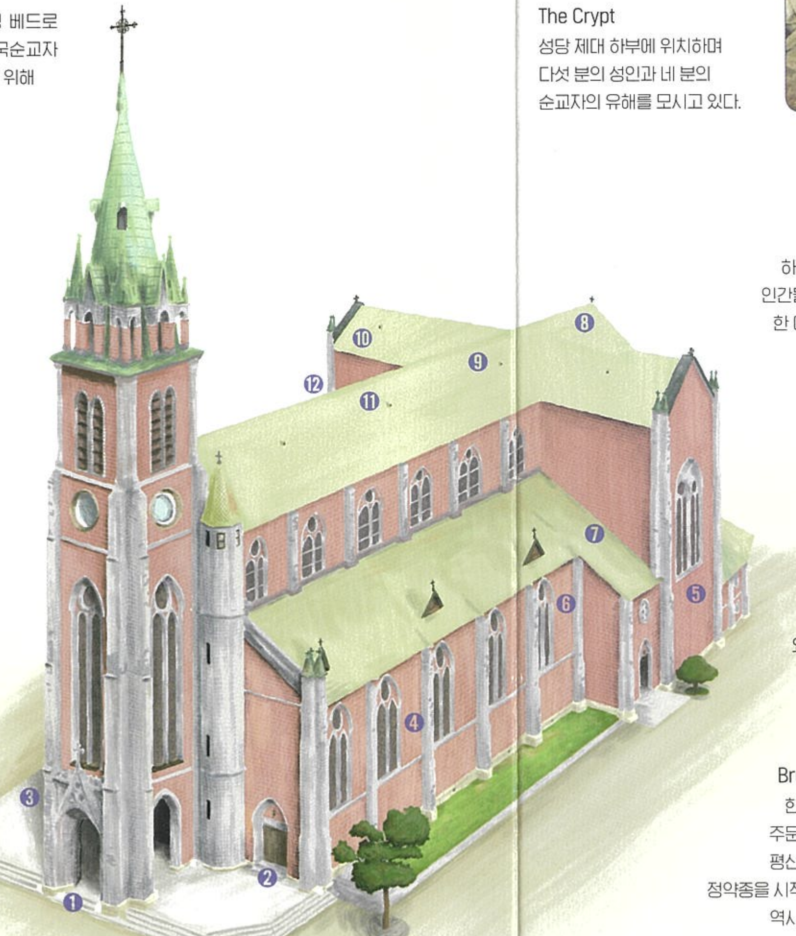
Kim Beom-woo Thomas

역관 출신인 김범우는 명례방 신앙 공동체의 주역이며, 이벽이 가르침과 권유로 입교하였다.

명례방 천주교 집회도 김태, 캔버스에 유채, 1984

Painting of Myeongnyebang Faith Meetings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초기 신앙 선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성화를 그리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초기 명례방에 모여 기도와 교리 공부를 하는 다양한 계층의 평신도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십자가의 길

최종태, 청동 부조, 1989

Stations of the Cross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충실히 완성하며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의 마지막 여정을 담아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용덕, 청동 부조, 2014

Pope Francis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부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임송자, 청동 부조, 1984

St. John Paul II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기념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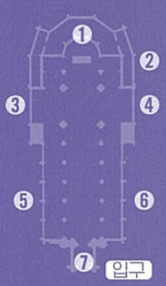
청동 정문

최의순, 청동, 1987

Bronze Main Entrance

한국 최초로 미사를 드린 주문모 신부와 그의 제자로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 회장 정약종을 시작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테인드글라스 Stained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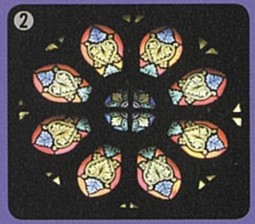
명동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1898년 국내 최초의 주교좌성당에 설치된 19세기 유럽 스테인드글라스의 표현양식을 수용한 작품이다. 1984년 한국 가톨릭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1차 보수 복원이 있었고, 2007년 2차 복원을 마치고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Stained glass in Myeongdong Cathedral, built in 1898, reflected the 19th century's European style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cathedrals in Korea. After the 1st restoration in 1984 when Saint John Paul II visited Korea to celebrate the 200th anniversary of Korean Catholic Church and 2nd in 2007, it remains as the present feature.

로사리오 십오단 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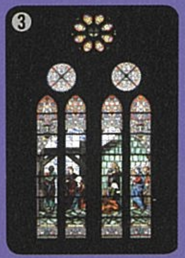
The 15 Decades of the Rosary

(The life of Jesus Christ and Mary)



장미창 1898

Rose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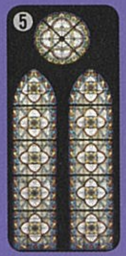


아기 예수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 1898

The Nativity Scene and the Adoration of the Magi

예수와 열두 사도 1898

Jesus and his 12 Disciples



신자석 창 1898

Windows along the pews

광창 1898

Clearstory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 기념

이남규, 1989

In commemoration of the 44th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